

# 선거구 실종 장기화...뿔난 예비후보들

### 선거운동 예비 절차 마비...확정 기다리며 하세월

### “미확정 상태에서 선거일 지정 위험” 첫 헌법소원

### 선관위 오늘 전체회의...‘예비후보 등록’ 재개 관심

여야 간 경쟁으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예초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상했던 정 의회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 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선거구획정 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조차 못하면 서 결국 무산됐다.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마무리되는 13일까지 되면 선거구 획정 작업이 갈피를 잡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

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타협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선거구 실종 사태가 10일로 열흘째 이어지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의정보고서를 내고 당원명부를 확보한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신고 절차도 사실상 ‘마비’돼 예비후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

관위는 이 회의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자칫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 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음’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 같은 상태로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상당한데다가 이번 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갈수록

급속해질 전망이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계속해서 각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상황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확정위의 의결 요건을 변경하거나,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확정위를 다시 가져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교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신당 창당발기인대회 1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 무소속 유성업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태 의원. /연합뉴스

## 박주선·박준영·김민석 신당 통합 합의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외정당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이 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민주계의 정체성을 계승한다. ▲탈당파와 안철수 세력의 신당 추진에 협조한다 ▲통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 3가지 신당 통합 원칙에 합의했다.

그동안 개별적인 불밀착점으로 진행됐지만 총선까지 촉박한 기간 등을 고려해 통합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

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가장 국민회의를 추진하는 전정배 의원은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불교방송 ‘빛고을 아침저녁’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당장 통합을 선언하거나 연석회의를 할 만큼 협의가 성숙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신당 창당 작업을 앞으로 상당 기간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총선 출마’ 송기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퇴임

4·13 총선출마 공직자 사퇴시한(14일)을 앞두고 송기석(53·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8일 퇴임했다. 송 부장판사는 오는 4·13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직 부장판사 출신이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것은 송 부장 판사가 처음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으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지역민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법관 생활을 떠나는 아쉬움과 슬픔도 크지만 새로운 길을 걷는 희망 때문에 마치 처음 입관 선서할 때처럼 심장이 뛰고 있다. 지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고흥 출신으로 광주지법 목포·가정지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기라운지

###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행...오늘 입장발표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안철수-전정배 신당행을 놓고 저울질해오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권 의원 측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의 변과 신당 참여 여부 등을 설명한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천 의원과 두차례 면담해 현역의원 1호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을 높였으나 탈당계만 제출하고 ‘행선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병원에 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한길계’ 인 권 의원이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데 이어 자신의 정계 입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재천 의원도 김 전 대표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울질을 끝내고 안철수 신당행으로 결심을 굳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비 예산 확보 성과 등 순천시 의정보고회

#### 김광진 터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제지를 비롯한 통영함 방산비리·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제기 등 활동성과와 국책사업 유치, 국비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크귀순을 받은 국회의원 등 여러 수석어가 붙었는데, 이중 ‘순천이 키운 국회의원’이라는 수석어가 가장 무겁고 자랑스럽다”면서 “순천토박이인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4·13 총선 현장

### 이병훈 출판 기념회...“광주를 희망의 공간으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이 9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저서 ‘문화가 밥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 등 3000명이 참석했다.

그는 이날 “지난 30년간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위한 비전을 정리해 보았다”며 “황막한 이 땅에 문화라는 나무로



밥이 되는 숲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는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광주를 희망의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 혁신과 창조적인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고 피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송갑석 광주시 서구 갑 출마예정자는 지난 9일 5·18 기념회관 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저서 ‘무등산 역사길에 내게로 왔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신정훈 의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의회 조오삼·이은방·김영남·김보현·임택 의원 등 3000명이 참석했다.



그는 “광주가 의향광주라 불리는 것이 희망정신을 실천했던 의병정신의 뿌리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향광주의 거대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무등산 역사길을, 아기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보길 바란다”고 출판 취지를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